



■ 17세기 멕시코 누에바 갈리시아의 유명 일본인

클라우디아 마시아스 데 운

식민시대의 멕시코 역사를 다루면서 대부분의 텍스트는 고대 테노치티틀란 자리에 건설한 멕시코시티를 수도로 삼은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에 중점을 둘 뿐,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발전한 다른 중요 지역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누에바 갈리시아 왕국은 누에바 에스파냐 내에 단 두 개밖에 없는 독립 왕국으로서 아래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할리스코, 나야리트, 콜리마,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사카테카스 등의 주(州)로 구성된 멕시코 서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도는 처음에는 콤포스텔라였다가 훗날 과달라하라로 바뀌었다.

누에바 갈리시아는 면적도 상당했지만 식민시대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미겔 로페스 데 레가스피와 안드레스 데 우르다네타의 원정대가 누에바 갈리시아 해안에서 출발하여 그토록 갈망하던 태평양 왕복 항해에 성공함으로써 16~17세기 동안 에스파냐 왕국이 필리핀까지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계는 그동안 식민시대를 연구하면서 누에바 에스파냐 부왕령의 정치적·사회적



누에바 갈리시아 지도

、경제적 여건만 주로 다루었을 뿐이다.

공식 역사, 가령 멕시코 최고의 연구대학인 콜레히오 데 메히코(El Colegio de México)에서 발간한 방대한 분량의 『멕시코 역사』는 정복 왕국 이외의 이주자 그룹들은 규모도 적고 일시적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카탈루냐 사람들에게도 제약이 있었고, 카스티야 왕국과 레온 왕국 외의 다른 왕국 사람들도 제약을 받았다.¹⁾ 물론 17세기에 들어 에스파냐의 다른 왕국 사람들이나 다른 유럽 사람들도 아메리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훨씬 많아졌지만 말이다.

1) 신대륙 정복은 에스파냐가 전체 국가의 이름으로 행한 사업이 아니라, 에스파냐의 여러 왕국 중 하나인 카스티야 왕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래서 카탈루냐를 비롯한 대부분의 왕국은 원칙적으로 신대륙 경영에서 배제되었다—옳긴 이.

특별허가나 이주권을 얻어 아메리카의 여러 식민지로 들어가게 된 에스파냐 외의 다른 유럽인들이 적지 않았지만 누에바 에스파냐만큼은 에스파냐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허락되지 않았다. 프랑스인, 플랑드르인, 독일인은 예외적인 존재였으며, 이들에 대해 기록한 문서에는 이들을 여행자 또는 일시적 체재라고 적고 있다 (Lira, 317-318).

그러나 이것을 모든 식민지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지방의 역사 기록이나 또는 공식 역사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다른 종류의 이주자들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할리스코 주에 해당하는 누에바 갈리시아의 상당 지역과 마찬가지로 몇몇 지방은 주민 모두가 온통 백인인데다 원주민은 하나도 없어서 당시 연대기 작가들을 놀라게 했다.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백인 주민이었다(Lira, 319).

이는 노예 신분으로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유입된 주민과는 다른 사례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잘 기록되어 있었다. 이들이 에스파냐 식민지에 도착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그나시오 솔라레스와 파코 이그나시오 타이보 2세는 전통적 역사와 사학계가 남긴 공백에 대해서 말한다. 이 공백은, 라틴아메리카에서 1980년대에 붐을 맞이하고, 페르난도 아인사나 세이무어 멘톤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하여 ‘새 역사 소설’이라 일컫는 경향의 작품을 쓴 소설가들의 조사와 상상력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메워졌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역의 역사나 향토사에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공백이 차츰 메워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누에바 갈리시아 왕국은 초창기부터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계속 거리를 유지했다. 에르난 코르테

스는 단 한 번도 그 땅을 밟지 않았다. 그곳을 정복한 사람은 후에 역사가들이 “부도덕하고, 야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잔혹한” (Schlarman, 94) 사람으로 평가한 누뇨 데 구스만이였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체를 원했으며, “멕시코시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땅” (García, 280) 위에 이를 건설했다. 자치정부로서의 누에바 갈리시아 창건은 1548년 에스파냐 왕실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주교를 두고 아우디엔시아²⁾도 갖추면서 달성되었다. 이에 대해 할리스코 출신의 유명한 역사가 루이스 페레스 베르디아는 “누에바 갈리시아는 누에바 에스파냐와는 별도의 자치 단위로서 부왕들은 결코 누에바 갈리시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Pérez Verdía, 101)고 말한다. 누에바 갈리시아의 레알 아우디엔시아 문서보관소는 1541~1824년 사이의 멕시코 북부와 서부의 식민시대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이 자료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1만 6천 건에 달하는 이 문서자료는 현재 90%가량 디지털화되었고, 할리스코 주 ‘후안 호세 아레올라’ 주립도서관³⁾이 관장하고 있다.



멜바 팔크(사진: 실비아 베아트리스 데 라 토레 루이스/『옥시덴탈』 지)

이 주립도서관은 누에바 갈리시아의 식민시대에 대해 당시까지만 해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 줄 역사 연구서 발간을 지원했다. 이는 과달라하라에 와서 완전히 할리스코 사회에 동화된 최초의 일본인에 대한 연구로, 그는 17세기 멕시코 제2의 도시인 과달라하라의 경제와 종교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2) 아우디엔시아는 주로 사법적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옮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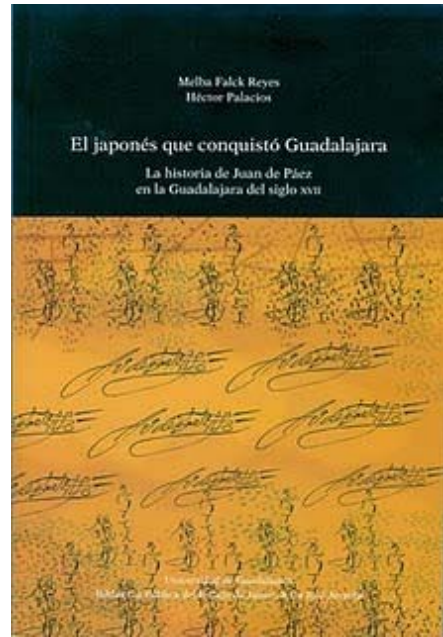
3) <<http://www.bipeja.udg.mx>>

되었다. 이 연구는 2009년 멜바 팔크와 헤토르 팔라시오스가 『과달라하라를 정복한 일본인—17세기 과달라하라의 후안 데 파에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7년간의 연구로 나온 이 책은 오사카 출신으로서 열 살 때에 과달라하라에 온 일본인 후안 데 파에스(1608~1675)에 관한 일련의 자세한 자료를 제공한다.

후안 데 파에스에 관한 역사는 20세 또는 25세 때 누에바 갈리시아에 도착한 또 다른 일본인 루이스 데 엔시오와 연관된다. 그는 원주민 여인과 결혼하여 딸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 딸이 나중에 후안 데 파에스의 아내가 된다. 루이스 데 엔시오는 일본 사무라이가의 후손으로, 세상을 떠날 때는 재산을 다 날린 상태였지만 어쨌든 성공한 무역상이었다. 후안 데 파에스는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았고 훗날 과달라하라 대성당의 재무관리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그 지방 성직자들의 재정업무를 보았다. 저자들에 따르면, 두 일본인은 매년 예수회 회원들과 필리핀 사람, 일본 사람과 함께 아카풀코로 향하는 마닐라 갈레온선을 타고 누에바 갈리시아에 왔으리라고 한다. 공식 역사에 따르면, “멕시코 서부는 예수회 회원들이 1767년 추방될 때까지 악착같이 고수한 영적 정복의 땅이었다” (Lira, 316).

17세기 과달라하라 사회를 연구하는 프랑스 역사가 토마스 칼보는 팔크의 책을 소개하면서 에스파냐 식민지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혼혈사회(에스파냐 남자와 원주민 여자에게서 나온)의 인물들과는 다른 인물들이 이 지역의 정치, 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인종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과 직업적 성공을 존중하는 사회였기에 후안 데 파에스의 신분상승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누에바 갈리시아는 누에바 에스파냐와 다르다. 누에바 에스파냐에서

는 도시 질서와 경제를 관장하는 에스파냐인들로 구성된 카빌도라는 기구의 자리를 팔기도 했다. 재산을 가진 크리오요나 에스파냐인 가문은 지방의 유지로서 그들의 영향력을 영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그 같은 직책을 취득하곤 했다. 돈을 주고 사거나 부왕과의 협착으로 획득하는 시읍면의 장이나 코레히도르(corregidor) 등의 직책은 누에바 에스파냐에서는 본국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자리였다(Lira, 356-357).



『과달라하라를 정복한 일본인』(El japonés que conquistó Guadalajara) 표지

일본인들의 과달라하라 출현에 대한 예전의 두 역사가의 연구를 추적해 나가면서 팔크와 팔라시오스는 특별히 개

인적으로 남다른 성과를 보인 두 일본인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역사를 읽어 나가는 독자라면 이 중요한 수도의 식민시대 생활상의 다른 면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소위 ‘교회의 자식들’이라 불리는 고아나 버려진 아이들에게 쏟았던 정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루이스 데 엔시오가 대부 역할을 해 줌으로써 입양될 수 있었다. 과달라하라 대학교 역사자료보관소의 세레책자에 관련 기록이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일본인처럼 성직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대성당의 묘역에 묻혀 있다.

어쨌든 이 책의 내용은 “17세기에 과달라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인” (Falck, 59) 후안 데 파에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의 모든 자손의 가계도를 알 수 있고, 그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준 탁월한 재정업무 활동과 그의 유언 등에

대해서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파에스 엔시오(Páez Encio)란 성을 사용하는 이 가문은, 인구 약 3천 명 중 에스파냐 사람은 불과 5백 명 남짓한 이 도시의 성직자들과, 그리고 누에바 갈리시아 당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식민사회의 선택받은 집단에 완전히 합류하였다. 후안 데 파에스로 하여금 상인으로서의 자질은 물론 쟁쟁한 가문들의 유산 집행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게 해 준 교육은 그를 누에바 갈리시아로 데리고 온 예수회의 후견에 힘입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자손들은 에스파냐 문화에서 비롯된 남성우월적 가부장제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모계제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가 낳은 자식들 아홉 가운데 남자가 셋이고 여자가 여섯인데, 가문의 유산과 명성은 그의 부인과 딸들을 통해 굳건히 유지될 수 있었다. 이 책은 그 점에 대해 “원주민과 일본인 혼혈인 마르가리타 데 엔시오(일본인 상인 후안 데 파에스의 미망인)는 [...] 거의 모두가 여자인 하인집단을 거느리고 있다” (Falck, 59)라는 칼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노예 소유는 경제적 지위의 상징이었는데, 후안 데 파에스는 과달라하라에서 가장 많은 노예를 거느린 3인 중 하나였다. 저자들이 세레와 장레 문서들 가운데서 발견한 상세한 기록에서 노예들의 이름, 인종(흑인 또는 물라토), 나이, 몸값 외에도 이들 중 누가 몸에 노예표식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를테면 “그해에 조셉은 약 20세 정도였고, 물라토이며, 얼굴에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Falck, 84)라는 식으로 적혀 있다. 교회 역시 노예를 소유했고, 이들을 산 미겔 병원으로 보내 환자들을 돌보게 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후안 데 파에스의 활동을 보면 그가 재정과 행정처리 능력이 탁월했고, 자신의 농장과 그가 대표하고 있는 농장들과 관련된 법규에 해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들이 파에스를 ‘재정

전문가’ 그리고 ‘사업가’ 라고 칭할 만하다. 파에스는 재정분야에서의 노련함뿐만 아니라 자질과 정직성으로도 그를 유산 집행인으로 지명한 가문들의 신뢰를 받았다. 1640년대에는 과달라하라 근교의 사포판이란 고을의 코레히도르 직을 맡게 되고, 이후 대성당의 집사 내지 재무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줄곧 일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 무렵 과달라하라 주교 교구가 누에바 갈리시아를 관장하고 있었다는 데서 후안 데 파에스가 맡은 직책의 중요성과 책임을 유추할 수 있다. 파에스는 이처럼 중요한 직책들을 놓고 협상할 때의 관례에 따라 1만 페소의 보증금을 제공했는데(Falck, 108), 다만 그의 경우는 죽을 때 자신이 일본 출신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유언장에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매관매직 사례와는 차이가 난다.

과달라하라에 받아들여진 이 유명 시민에 관한 정확한 정보 외에도 이 책은 일본 도자기, 중국과 일본에서 제작된 그리스도 초상화 등 여러 사진을 담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17세기 것으로 오늘날 과달라하라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온



19세기 과달라하라 대성당

이민자들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에스파냐인들이 도래했을 때부터의 멕시코 서부 역사는 누노 벨트란 데 구스만과 그의 잔혹함에 대해서만 말해 주는 게 아니라, 토바르 데 테레사의 말마따나,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루트를 발견하고자 한 유럽인들의 열망과도 관련되어 있다. 17세기의 예수회와 도미니크회의 연대기는 부왕 정부의 무역 다변화에 대한 관심, 에스파냐와 일본 간의 교역을 위해 사절단을 필리핀에 보내 통치자를 초대하고자 했던 일, 예수회 신부들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Yoon, 93). 그러한 교류를 통해 이민자들이 나타나고, 이들 중 두 명의 일본인이 과달라하라에 와서 활력이 넘치는 누에바 갈리시아의 구성원이 된 것이다. 이 같은 역사가 멕시코의 정체성을 이루는 다양한 인종의 문화 변용(aculturación)과 통합의 예를 잘 설명해 준다. 문화 변용은 다양한 인간사회 간의 접촉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은 불가피하게 “기존 문화의 상실 또는 근절”을 야기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개인 또는 사회집단의 “신 문화화”(neoculturación)로 귀결된다(Rama, 32-33).

후안 데 파에스는 69세 되던 해인 1675년 12월 15일 사망했다. 그리고 누에바 갈리시아의 성직자들과 많은 귀족 가문들에게 재산을 지혜롭고 정직하게 관리한 훌륭한 경제인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성 그리스도 제단 아래 묻히는 영광을 얻었다. 이 유명인사의 가족에 대한 연구서는 1704년 그의 딸 후아나 파에스 엔시오의 사망 때까지 이어진다. 이 흥미진진한 책의 두드러진 결론 가운데 하나는 “분명 이것은 이민이 현지사회의 활력을 만들어 내는 원천이 되는 하나의 좋은 예(Falck, 122)”라는 구절이다. 멕시코 서부의 독특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인정하는 결론이다. 이곳의 아시아 이민자들은 누에바 에스파냐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인 역동성을 발휘하면서 누에바 갈리시아에 합류하여 그 지방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

[신찬용 옮김]

참고문헌

- Falck Reyes, Melba y Héctor Palacios. 2009. *El japonés que conquistó Guadalajara*. La historia de Juan de Páez en la Guadalajara del siglo XVII. Universidad de Guadalajara-Biblioteca Pública del Estado de Jalisco “Juan José Arreola” .
- García Martínez, Bernardo. 2000. “La creación de la Nueva España” . *Historia general de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235-306.
- Lira, Andrés y Luis Muro. 2000. “El siglo de la integración” . *Historia general de México*. El Colegio de México. 307-362.
- Pérez Verdia, Luis. 1952. *Historia del Estado de Jalisco*. tomo 2. Ed. Gráfica.
- Rama, Ángel. 1982. *Transculturación narrativa en América Latina*. Siglo XXI.
- Schlarman, Joseph H. L. 1973. *México tierra de volcanes*. De Hernán Cortés a Luis Echeverría Álvarez. Porrúa.
- Yoon, Bong-Seo. 1994. “Encuentro de dos mundos: México y Poniente, el fenómeno de la transculturación” . *La cuenca hispana del Pacífico, pasado y futuro*. Sociedad de Geografía y Estadística del Estado de Jalisco. 81-95.